



불교가 살아야 세계도 국가도 개인도 산다

효의 가르침 어떻게 받들까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해야 사회도 밝아진다. 효(孝)에 대한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산업 사회로 접어들면서 해체되기 시작한 가정의 질서는 이제 사회의 병폐로 이어지고 있다. 효

정신을 선양함으로써 가정과 사회, 국가, 인류의 건강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지난 30여 년간 <부모은중경>을 강의 해 온 정무스님(석남사 주지)에게 부처님이 가르치는 효의 정신과 실천 과제를 들었다.

孝 자식 아끼듯 부모 섬겨라

30년간 '부모은중경' 강의 정무 스님께 듣는다

▲스님께서는 어느 법회에서든 <부모은중경>을 주제로 법문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효에 대한 가르침을 펴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부모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 구실을 할까요? 효에 대한 교육은 무슨 사상이나 교육의 테마로 공식화 될 필요도 없는 인간 삶의 기본입니다. 가정이 붕괴되면 세상이 밝아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이치죠. 사실 우리 사회는 붕괴의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1년 용주사 주지를 맡으면서부터 효행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부모은중경탑’을 세운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정조대왕과 관련한 효행의 역사적 배경을 부각 시켜서 부처님이 가르치는 효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선양하고 싶습니다. 교육이란 바로 자기 자리를 찾아 가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 반듯하게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의 자기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없거든요. 효의 정신이란 바로 부모와 자녀의 자리를 바르게 인식시키는 일입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깨달음과 효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까요?

“불교는 부처가 되길 바라는 종교입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되길 염원하고 노력하는 종교죠. 그런데 부처가 되기 위해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간교육이 먼저 되고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되어서 중생계로 확산되어 나가야 깨달음의 세상이 열립니다. 혼자 깨달아 성불한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효의 가르침은 바로 인간의 본성 즉, 불성을 발현하는 근원을 행하는 실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와 국가의 고마움 함께 사는 이웃의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특히 불자들은 스스로 간직하고 있는 불성의 자리가 효도를 다하는 겸허하고 소고한 생각에서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부모은중경은?

부처님께서 길을 가다가 한 무더기의 뼈를 발견한다. 그리고 경건하게 다가와 그 뼈에 절을 한다. 동행 하던 제자 아난이 그 까닭을 묻자 부처님은 “끝없는 옛적부터 금생에 이르는 동안의 육도중생이 다 나의 부모였었다”

이렇게 시 작되는 <불설 부모은중경>은 인간의 근원이 무엇이고 지금의 몸이 얼마나 귀한 인연들의 집합체인가를 일깨우는 경전이다.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어 출생을 하기 전까지의 과정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생명 의 존귀함을 일깨우는 대목이라 할 수 있

효행강조한 대표적인 불교경전

'부모님 10가지 은혜' 큰 감동

정무스님 약력

- 1931년 군산출생
- 전북대 졸업
- 58년 전강스님 은사로 봉은사서 득도

다. 효행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경전이지만 사람의 출생과정과 부모의 양육 과정, 자식의 부모 섬기기 어려운 점 등을 낱말이 기록했다. 아무리 큰 노력을 하여 부모를 공경해도 부모의 은혜에는 털끝만큼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효도에 끝도 안상도 없음을 가르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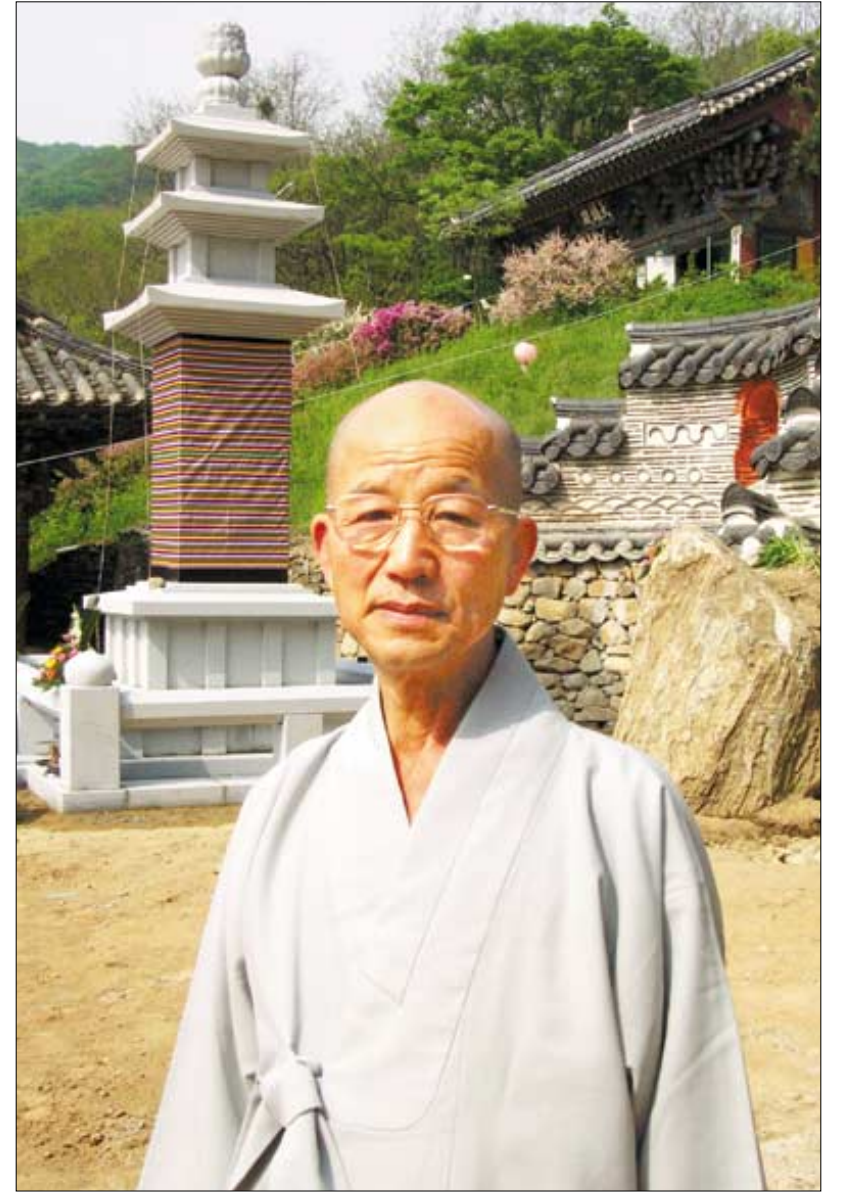
특히 부모님의 열 가지 은혜(十種大恩)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폐부를 찌르는 감동을 준다. 그 열 가지 속에는 자식들이 저지르는 온갖 불효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도 설명하고 있으며 불효한 자가 지옥에서 어떻게 과보를 받는지도 설명하고 있다.

- 직지사강원 졸업
- 삼척 영은사서 탄허스님에게 대교과 수료
- 71~82년 용주사 주지, 83년 신륵사 주지, 이천 영월암 주지, 현재 안성 석남사 주지

어버니발 부르는 '어버이 은혜'란 노래 있잖아요? 그 가사가 다 <부모은중경>에 있는 가르침입니다. 잉태하여 지켜 주신 은혜, 해산 할 때 고생하신 은혜, 무사히 낳고 사야 근심을 잊으신 은혜,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먹여 주신 은혜, 마른자리 진자리 같이 주신 은혜, 젖 먹여 길러 주신 은혜, 더러운 것 씻어 주신 은혜, 자식 걱정 하시는 은혜, 자식 위해 땀 흘릴 일도 마다 않으신 은혜,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그것입니다. 나는 이 열 가지 가르침이 다 마음에 있다고 봅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보다 간절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열 가지 어버이 은혜는 가장 소중한 보살행입니다.”

▲스님께 법문을 할 때 효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조하시는데 어떤 것입니까?

“요새는 한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자체가 남다른 효도입니다. 다들 양로원으로 보내고 자기들 끼리 살려고 하고, 자기 자식을 아끼는 마음은 엄청난데 부모 생각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식 아끼듯 부모 섬겨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잘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인데 잘못된 뜻도 일단은 따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면전에서 잘못을 따지지 말고 밖에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자기의 뜻을 반영시키고 나중에 그걸 잘 말씀 드리는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다음은 큰 방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공기가 잘 통하는 큰 방(기왕이면 화장실이 붙어 있는)에 모셔야 건강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알맞게 드리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용돈을 반드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가 병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혹 병이 들었을 경우에는 자식이 직접 간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모가 불인(不仁, 차마 망령 등) 할 때는 자식이 먼저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부모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해도 멀리하거나 꾸지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부모를 대해야 합니다. 임종할 때에는 '올고불고' 하



'효심이 중심·본심·천심'...석남사에 부모은중탑 조성

30년 이상 대중법회에서 <부모은중경>의 가르침을 법문해 온 정무스님은 효도가 참사람을 만드는 기본이므로 효도하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란 점을 강조한다. 올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안성 석남사에 부모은중탑을 조성한 스님은 탑 글 말미에 “효심이 중심 본심 천심이 결탁에 공양 예배 찬탄 하는 이바로 그가 공양 예배 찬탄 받는 이(아름다운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여/무궁토록 건강하고 행복할 지로다”라는 계승을 지어 붙였다.

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 임종 앞에서는 불효자식이 더 크게 운다는 말도 있습니다. 죽음을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편안하게 임종해야 하는데 크게 울부짖고 몸을 뒤 흔들어 버리면 그 영가는 불안한 그대로 떠돌게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효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은 하지만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부모님의 은혜를 열

마나 절실하게 깨닫고 효도를 하고 살아야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끝없이 참회해야 합니다. 참회하지 않는 사람은 개선도 발전도 없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늦습니다. 살아 계실 때에 최선을 노력으로 잘 모셔야 하고 부족한 것이 없나 살피면서 참회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임연태 기자 yltim@buddhapia.com

효도에 대한 교육 인간 삶의 기본

효도 할 때 불성의 자리 더 빛나

입니다.”

▲현대 교육에 있어서 효 정신의 강조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교육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는 힘(정신)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에 소홀해 지나가 세상이 무질서 해 지는 것 아닙니까? 인간 사회의 무질서란 무서운 것입니다.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질서가 없으니 자유와 권리를 바르게 추구할 수 없지요. 그래서 세상의 범죄와 질병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은중경>에서는 강조하는 부모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요?
“열 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봉” 부처님이 오신 길을 저희도 가렵니다 “축”

거룩한 부처님께서 사바에 오신 사월 초파일의 맞아 조계사 사부대중은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신 크신 뜻이 되새기며 부처님이 오신 길을 따르려 합니다.

항상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하는 자비심과 내 삶과 이 세상에 등불을 켜겠다는 발원으로 참회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의 크신 원력으로 온 세상이 폭력과 전쟁 없이 평화롭고 남북이 통일되어 분단의 아픔과 불행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조계사 사부대중 일동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조계사 사부대중은 맑고 아름다운 서울을 위해 인왕산에 나무를 심고, 병든 이웃을 돕기 위해 “자비의 등”을 밝혔습니다.

불우한 이웃과 균장병을 위해 자비의 선물을 만들고, 사사로 고통받는 온 세상 사람들의 건강을 발원하며 인천국제공항에 연등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오신 길을 따르기 위해 밤새도록 3,000매를 올렸습니다.

5월 봉축행사 5월 4일 오후 3시 연등축제 / 5월 6일 오전 10시 노인잔치 오후 7시 30분 초청강연회(정화회) / 5월 7일 오후 9시 봉축전야차정진 / 5월 8일 오전 10시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오후 3시 봉축문화마당 오후 7시 점등식 및 회향기도

조계사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 전화 732-21834 / www.jojyesa.org